

애니메이션 영화 <창, 2012>에 구현된 시사고발 영화 기능 The Function of Social Criticism Film Implemented in Animation Film <Window, 2012>

이현석
동서대학교 디지털콘텐츠학부

Hyun-Seok Lee(hslee@dongseo.ac.kr)

요약

연상호 감독의 단편 애니메이션 <창, 2012>은 군의 폭력성을 드러내는 시사고발 내용으로 많은 이들의 공감과 성찰을 유도하였다. 이는, 사회고발적 주제를 통해 오락성이 아닌 공익을 위한 애니메이션의 사회적 가치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애니메이션을 통해 시사고발 영화 기능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서사적 구성과 연출 특성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연구의 전개는 첫째, 문헌과 사례를 중심으로 시사고발 영화의 의의와 일반적 특성에 대해 고찰한다. 둘째, 앞선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분석기준을 도출하고, 셋째, 애니메이션 단편 영화 <창>에 대해 시사고발적 기능, 연출적 특성, 애니메이션 표현기법을 중심으로 사례연구를 진행한다. 본 연구를 통해 <창, 2012>은 군내부의 위계적, 폐쇄적 특성으로 인해 역사적,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일반 시사고발 영화와는 다른 특성이 드러났으며, 또한, 연상호 감독의 독창적인 서사적, 연출적 기법이 애니메이션을 통해 시사고발기능을 효과적으로 구현함을 알 수 있다.

■ 중심어 : | 시사고발 | 애니메이션 | <창, 2012> |

Abstract

The short animation <Window, 2012> directed by Sang-Ho Yeon has led the sympathy and reflection of audiences through revealing the violence of the military in the form of the social criticism film. The <Window, 2012> explores the social value of animation by the content of social criticism, not for entertainment uses but for public interest. This research addresses how the function of social criticism implements in animation film, especially, its narratives and direction. In the light of this, firstly, literature will review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social criticism films, Secondly, based on literature reviews, analysis tools will be drew, thirdly, the case study regarding <Window, 2012> will be processed by focusing on The function of social criticism, the technique of direction and expression of animation.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Window, 2012> shows unique traits because of the hierarchical and exclusive characteristics of military culture, which differs from general characteristics of social criticism films dealing with historic and social issues. In addition to this, the function of social criticism is effectively implemented in animation film, <Window, 2012> by the creative narratives and technique of direction by a director, Sang-Ho Yeon.

■ keyword : | Social Criticism | Animation | <Window, 2012> |

I. 서론

<창, 2012>은 군인을 소재로 하여 군 내부의 부조리한 폭력성과 은폐성을 고발하는 애니메이션 영화이다. 연상호 감독은 군대 내 일상화 된 폭력과 이를 은폐하는 권력구조로 인한 병사 개인의 고통과 갈등을 시사고발 형식의 서사와 애니메이션 표현기법을 통해 사실적으로 연출한다. 특히, 연감독 본인의 실제 군대경험에 기초하여 내러티브를 구성하였으며, 극 중 주인공인 정병장에 자신을 이입하여 연출함으로써 사실성을 강조하였다. 본 논문은 군내부의 집단주의적, 위계적 문화와 관련한 폭력성, 은폐성, 폐쇄성의 이슈를 애니메이션 영화 <창, 2012>을 통해 어떻게 묘사하고, 문제의식을 드러내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갈수록 사회 이슈화 되는 군내부의 가혹행위와 관련하여 군 조직의 문화차원에서 문제를 다룬 영화는 많지 않으며, 또한, 이를 영화적, 시사고발적 관점에서 분석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를 위한 연구의 전개는 첫째, 시사고발 영화의 사회적 기능과 의의 그리고 연출적, 영화적 특성에 대해 문화 해석적으로 접근한다. 둘째, 앞선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사례 분석기준을 도출하고, 셋째, 군내부의 폭력성, 은폐성, 폐쇄성에 대해 시사고발 영화의 특성을 기준으로 애니메이션 <창, 2012>에 대해 사례 분석코자 한다. 본 연구는 시사고발 영화의 특성과 이를 수용하는 대중성을 사회문화현상의 일면으로 전제하고, 이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은 질적 연구로써 문화 해석적 접근과 사례분석을 통해 주관적 실제인 애니메이션 영화의 시사고발 기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본론

1. 시사고발 영화의 의의와 사회적·연출적 기능

고희일(2006)은 ‘시사라는 용어는 시의성(timeless)을, 고발은 프로그램의 감시와 폭로의 책임을 강조[1]’한다고 정의 하였다.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본연의 기능은 공익을 위한 사회적 의제를 형성하고 공감을 이루는

것으로써, 김미덕(2014)은 그 공적 기능을 위해서는 사건의 결과를 떠나 그 중요성과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언급했으며[2], 고희일(2006)은 시사고발을 위해서는 공정성, 객관성, 적절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1]. 이러한 시사관련 TV 프로그램은 일반보편의 통념적 인식이 공유되는 시의성(timeless)과 도덕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공익을 전제로 제작된다.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시초는 1968년 제작된 미국 CBS의 <60 Minutes>이며, 사회 이슈가 되는 실제 사건을 탐사 저널리즘 형식으로 보도하여 TV시사고발 프로그램의 장르를 개척하였다. 한국에서는 <추적 60분>, <PD 수첩>, <시사매거진 2580> 등 시사고발 프로그램이 대중적 지지와 인기를 바탕으로 사회감시기능과 부당한 권력 행사에 대한 폭로 및 공론화 그리고, 은폐된 역사에 대한 재조명 등 언론의 사회 윤리적 기능을 해오고 있다. TV 시사고발 프로그램은 제작 의도와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대형 비리나 사회 정치문제에 대해 추적 및 포착하고, 관찰하는 뉴스 형식의 프로그램이다. TV시사프로그램은 진행자의 내레이션을 중심으로 사건 관련자와 인터뷰, 현장 포착을 위한 잠복 및 잠입, 배우를 통한 사건의 재현, 그리고 증언자의 얼굴 모자이크 처리와 음성변조 등 다큐멘터리식 연출기법으로 제작된다. TV시사고발 프로그램은 사건 전개에 긴박성과 드라마적 장치로 인해 그 대중적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최근에는 대중오락성과 사회공론의 가치가 혼합되는 시사고발 주제의 영화 제작이 늘고 있다. 김미덕(2014)이 시사고발 영화인 <도가니, 2011>가 ‘영화를 통해 사회와 소통이 되지 않았더라면 그 문제가 그렇게 가시화되지 않았을 것[2]’이라고 언급하였듯이 영화를 통한 시사고발의 기능은 보다 광범위한 대중적 호소와 사회적 파급력을 불러온다. 영화를 통한 시사고발은 ‘사실 전달’이나 ‘역사기록’을 위한 다큐멘터리 형식의 재구성 이라기보다는 ‘진실을 서사적으로 재현’ 함으로써 특정 사건에 대해 환기하는 매개적 역할을 한다. 시사고발 영화의 사실성에 대해 배상준(2013)은 ‘실제 사건과 어느 정도의 일치를 보이느냐 하는 리얼리티에 대한 논쟁은 소모적이며, 그

자체가 형용모순인 것[3]’이라고 언급하였다. 시사고발 영화는 실제 사실에 대한 영화적 재현이며, 무엇보다, ‘흥미’ 자극이 주요한 서사장치로 작용하는 허구적 창작물이기 때문이다. 배상준(2013)이 시사고발 영화에 대해 ‘리얼리티 논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영화들이 깨뜨리고 있는 시대정신을 바라보는 일[3]’이라고 하였듯이, 이에 대한 대중적 인식 확산을 통해 공론적 의제로 발화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시사고발 영화의 내용에 따른 유형과 대립구조 그리고 서사구성 및 연출 특성 등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1996년 이후 제작된 시사고발 영화 20편을 선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표 1]. 선정 기준은 주요 흥행작, 언론의 이슈화, 실제사건과의 포괄적 개연성을 고려하여 선별하였다.

시사고발 영화의 실제사실 연관 정도에 따른 유형을 보면, 첫째, 사건의 특정 피해자를 명확하게 연상할 수 있는 영화는 ‘특정인 중심’로 기준하고, 둘째, 특정 사실에 대해 일반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영화는 ‘특정사건 관련’으로 분류하였으며, 셋째, 특정 인물과 사건이 아니지만 사회현상의 맥락 상 관련한 사건을 유추할 수 있는 영화를 ‘포괄적 사회문제’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특정인 중심’은 영화를 통해 실제 피해 인물을 명확히 연상할 수 있는 영화이다. 예를 들어, <자백, 2015>은 국정원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된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을, <변호인, 2013>은 부산최대 용공 조작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들과 변호를 맡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노리개, 2013>는 정상납과 술시중의 강요에 고통당한 장자연을, <남영동 1985, 2012>는 고문기술자 이근안에게 고문당한 정치인 김근태를 자연스럽게 연상시킬 수 있다. 사회적으로 알려진 특정 피해인물 중심의 사회고발 영화는 언론을 통해 사건이 어느 정도 알려진 상태이지만, 사건의 실체와 맥락을 피해인물의 중심에서 전개하는 영화적 장치에 의해 사건의 심각성과 피해를 재생산하며 확대한다.

둘째, ‘특정 사건 관련’은 특정 인물보다는 사회적 이슈가 되는 실제 사건과 연관한 영화로써 <또 하나의 약속, 2013>은 삼성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희생된 근로자의 사건을, <부당거래, 2010>는 김진 서울지검 특수부장의 ‘뇌물비리 사건’을 연상케 하

고, <그놈 목소리, 2007>는 1991년 발생한 이형호군의 ‘유괴사건’을 떠올리게 하며, <살인의 추억, 2003>은 ‘화성연쇄 살인사건’을 연상하게 한다. 셋째, ‘포괄적 사회문제’는 일반적으로 이슈화된 사회 문제를 다룬 영화로써 <터널, 2016>은 한국내부의 사회안전시스템에 대한 불감증을, <베테랑, 2015>은 재벌권력의 횡포를, <내부자들, 2015>은 정치권력, 재벌, 언론의 유착관계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영화의 주제가 실제 일어나는 사회적 사건과 개연성이 높고 보편적 추정이 가능한 부정과 비리에 대해 고발하고 있는 유형이다.

표 1. 실제사실 연관 정도에 따른 시사고발 영화 유형

연도	제목	시사고발 주제	시사고발 영화 유형
2016	자백	국정원에 의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특정인 중심
2016	터널	정부의 사회안전시스템	포괄적 사회문제
2015	베테랑	재벌권력의 횡포	포괄적 사회문제
2015	내부자들	정경유착의 카르텔	포괄적 사회문제
2015	다이빙벨	세월호 구조 참사	특정 사건 관련
2014	제보자	연구결과 조작사건	특정인 중심
2013	또 하나의 약속	대기업의 노동자에 대한 비인권적 횡포	특정 사건 관련
2013	변호인	부산 부림 사건과 노무현 전 대통령	특정인 중심
2013	노리개	자살한 연예인의 정상납	특정인 중심
2013	방황하는 칼날	성폭행 피해	포괄적 사회문제
2012	남영동 1985	군사정권 하의 비인권적 고문	특정인 중심
2011	도가니	청각 장애아 학대와 성폭력	특정인 중심
2011	부러진 화살	성균관대 수학과 교수의 석공 테러사건	특정인 중심
2010	부당거래	스폰서를 통한 경찰, 검찰의 사건 조작 비리	특정 사건 관련
2007	그놈 목소리	어린이 유괴사건	특정 사건 관련
2007	화려한 휴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특정 사건 관련
2005	그때 그 사람	박정희 대통령 시애사건	특정인 중심
2003	살인의 추억	화성연쇄살인사건	특정 사건 관련
1996	꽃잎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특정 사건 관련
1995	아름다운 청년전태일	대기업의 노동자 탄압	특정인 중심

분석 대상 20편 중 9편이 ‘특정인 중심’이고, 7편이 ‘특정 사건관련’, 4편이 ‘포괄적 사회문제’로 분류되었다. 이는 사회적으로 여론화된 실제 인물 및 특정 사건 중

심의 서사를 통해 시사고발 기능을 극대화함을 알 수 있다. 김미덕(2014)이 시사고발의 대립구도에 대해 ‘내부고발자 대 조직의 대응[2]’이라고 하였듯이, 시사고발 영화는 거대권력과 소수, 가해자와 피해자의 뚜렷한 이항 대립적 구도로 전개된다. [표 1]의 20편의 시사고발영화 속 피해자의 유형을 보면, 첫째, 노동자, 학생, 어린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층, 둘째, 거대조직에 항거 하는 개인의 형태, 셋째, 역사적 사건에 의해 희생된 다수의 시민 등으로 분류된다. 내부 고발자나 피해자는 권력에 의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범죄가 있고, 불안정하며 반드시 정상인과 떨어져 있어야 하는 사람들[2]’로 왜곡되며 조작된다. <부러진 화살, 2011> 속 김명호 교수는 대학교에 의해 비정상적인 교수로 매도되고, 법원에서 부당한 판결을 받게 되며, <변호인, 2013> 속 부림 사건 가담자들은 용공분자로 조작된다. 이러한 피해자나 약자들에 대한 왜곡과 매도는 사건 처리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를 불러일으킨다. <도가니, 2011> 속 청각 장애아들은 교장과 직원으로부터 성폭력과 학대를 받아 사건 발생에서 1차 피해를 입었지만,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학교 교장과 경찰이 사건을 왜곡하고, 장애아들을 비정상인으로 매도하면서 2차 피해가 발생된다. 피해자는 사건자체 뿐 아니라 사건이 처리되는 부당한 과정에서 피해가 가중된다. 시민사회가 바라는 공정성과 상호신뢰에 반하는 불공정한 법 집행은 관객에게 무력감, 상실감을 통해 집단적 분노를 유발하게 된다.

이러한 국민적 공분을 유발하는 가해자의 유형을 보면, <자백, 2016>, <다이빙벨, 2015>, <변호인, 2013>, <남영동 1985, 2012>, <화려한 휴가, 2007> 등에서는 군사정권, 국정원, 검찰, 행정기관 등 국가 권력이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또 하나의 약속, 2013>, <노리게, 2013>, <도가니, 2011>, <부러진 화살, 2011> 등에서는 대기업, 학교 교장 등 사회적 상위계층으로 있는 권력자들이 대부분이다. 마지막으로 <방황하는 칼날, 2013>, <그놈 목소리, 2007>, <살인의 추억, 2003> 등에선 불특정 범죄자가 가해자로 묘사된다. 시사고발 영화는 권력자나 권력구조에 의한 정의의 붕괴, 사회적 불평등, 비인권적 행위, 부당한 억압, 윤리와 상식의 부

재를 각인시키며, 집단적 공유를 통해 사회적 공분으로 확장된다.



그림 1. <자백>속 인터뷰 장면(좌), <다이빙벨> 속 인터뷰 장면(우)

시사고발 영화의 장르를 보면, 최승호 감독의 <자백>과 이상호 감독의 <다이빙벨, 2015>은 독립영화로써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되었다. 전직 MBC PD 출신의 감독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실제 사건상황과 관련 인물들에 대한 현장 인터뷰 그리고 내레이션을 통해 사실전달 중심의 서사를 구성하고 있다[그림 1]. <방황하는 칼날, 2013>, <그놈 목소리, 2007>, <살인의 추억, 2003>등은 범죄 스릴러이며, <베테랑, 2015>, <내부자, 2015>등은 액션 장르에 속하고, <터널, 2016>, <도가니, 2011>, <부러진 화살, 2011> 등 다수의 영화는 드라마 장르에 속한다.

또한, 사회고발영화의 주제 성향을 보면,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룬 <화려한 휴가, 2007>, <꽃잎, 1996> 그리고 실제 인물인 전태일의 노동문제를 다룬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1995>, 부림사건을 다룬 <변호인, 2013>과 같이 ‘역사적 사건을 재구성하는 유형’, <자백, 2016>, <제보자, 2014>, <내부자들, 2015>, <부당거래, 2010> 등 ‘정치권의 부정부패를 다룬 유형’, <살인의 추억, 2003>, <방황하는 칼날, 2013> 등 범죄 스릴러 장르의 영화들은 사회강력범죄의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김미덕(2014)은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의 비리 폭로를 다룬 김남일의 견해를 인용하였는데, ‘(시사고발 프로그램은) 모두 구조적인 문제나 본질적인 해결방안 등에는 매우 인색하고, 고발자 중심의 흥미 요소를 부각시킨 보도방식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2]’고 하였으며, 또한, 고희일(2006)은 ‘선정적이고 자극적이며 본질을 벗어난 흥미위주의 사건전달에 치중하거나 흥미를 겨냥한 프로그램 구성[1]’으로 흐를 수 있다고 하였다. 사

건의 본질과 대책보다는 개인과 조직의 대립 프레임으로 변질되며, 극대화된 흥미위주의 내용으로 구성되는데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오락성 치중 현상은 시사고발 영화에서도 드러나는데, 지나친 선정성과 흥미위주 장면연출로 인해 시사고발 기능이 도외시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노리개, 2013>의 경우 사건의 원인과 본질과 그 전개과정에 대한 심층적 진실을 드러내기 보다는 지난 친 감성의 호소와 선정적 장면구성으로 인해 문제의식이 결여되고 있다.

시사고발 영화는 서사의 구성을 통해 특정사건을 영상화하여 파편화된 진실과 정보를 종합적으로 인지하도록 작용한다. 또한, 영상 서사를 통한 특정 상황의 재구성 및 재현은 관객으로 하여금 ‘추정’의 단계에서 사실에 대해 ‘수용’ 하는 차원으로 전환시키는 촉매역할을 하게한다. <내부자들, 2015>에서는 김 전 법무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을 연상케 하는 장면이 연출되고, <남영동 1985, 2012>에서는 잔인한 고문장면을 통해 피해자가 고통 받는 모습을 재현하고, <도가니, 2011>에서는 장애학생이 성폭력을 당하는 장면을 배우들의 사실적인 연기를 통해 실제 존재 했었던 사실을 재 각인시킨다[그림 2]. 이러한 영상의 파급력에 의해 시사고발 영화는 사실에 대한 재인식을 바탕으로 사회문제의 공론화 기능을 하며 언론과 TV시사 프로그램과는 다른 영상 고발적 특성을 갖는다.



그림 2. <도가니, 2011> 속 교장이 장애아를 성폭행 하려는 장면(좌), <남영동 1985, 2012> 속 고문장면(우)

기존에는, 폭로된 사실은 사회적 의제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비판과 공격 처벌로 이어졌으나, 시민사회의 성숙으로 인해 2000년대 이 후 사회고발성 제보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2011년 3월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제정되었으며, 또한, <도가니, 2011> 영화 상영을 통해 사건 발생 방지를 위한 국회차원의 입법이 진행되며 실

질적 변화를 가져온 경우도 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과 연관한 시사고발 영화의 성향에 대해 김성제 감독은 ‘아마도 영화 <부러진 화살> 이후부터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은 사회이기 때문일 것[4]’ 이라며, 사회고발영화의 제작 증가추세에 대해 언급하였다.

<베테랑, 2015>을 제작한 류승완 감독은 시사고발영화의 증가와 흥행 이유에 대해 첫째, 사회현실을 반영하기 때문이며, 둘째,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방관하는 사회적 문제의 폭로에 대한 대리만족, 셋째, 영화 제작자들의 효과적인 연출력, 넷째, 고발영화를 통한 간접적인 카타르시스 경험이라고 하였다[4]. 이는, 시사고발영화는 비록 사회의 어두운 주제를 다루지만, 다수의 대중 앞에서 은폐된 부정과 비리를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또한 거대권력에 맞서 싸우는 자의 용기 있는 행동에 대리 만족을 느끼기 때문이다. <변호인, 2013>에서 열연하는 전 대통령인 노무현 변호사가 법정에서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에서는 관객의 감정몰입이 최고조에 이르며, 공정사회를 바라는 집단적 유대와 정신적 치유를 느끼게 한다. 또한, 최근에 제작된 <자백>의 경우 현 정권과 관련한 민감한 정치적 문제를 고발함으로써, 많은 시민의 응원과 더불어 개봉 2주차 77개 상영관에서 90만 관객을 돌파하였다. 이는, 모든 이가 바라는 공정사회에 대한 염원과 기대가 시사고발 영화를 통해 표출되고 있으며, 일반적인 상업영화와는 다른 사회적 가치와 연계되어 있음을 반증한다. 또한, 사회비판의 순기능과 권력의 횡포에 대한 견제라는 시사고발 영화의 기능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커져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중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화 해석적으로 접근한 시사고발 영화의 사회비판적 기능과 대중적 수요는 새로운 사회문화현상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는 대중문화의 지향점이 사회체계의 도덕적 실현과 실천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사고발 영화의 목적, 요건, 장르, 성향, 유형, 특성 등을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시사고발 영화의 특성 요약

구분	내용
목적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공익추구 및 상업적 흥행
시사고발 요건	시의성, 도덕성, 객관성, 정당성
주요 장르	드라마, 다큐멘터리, 액션, 스릴러 등
주제 성향	역사적 사건, 공권력의 비리, 사회범죄 등
세 가지 유형	특정인 중심, 특정 사건 관련, 포괄적 사회문제
흥미치중 성향	오락적, 선정적, 자극적 표현
가해자 유형	정부관련 공권력, 재벌 및 기관, 불특정 범죄자
영화영상 특성	사건에 대한 내러티브 구성, 영상서사를 통한 사실적 재현
연출 방법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항 대립적 구조, 피해자 매도, 사건의 은폐를 통한 2차 피해 유발, 피해자 중심 서사 전개, 피해 장면의 극적연출, 억압받는 피해자의 내면 묘사

2. 분석방법

앞선 시사고발 영화에 대한 문헌 및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애니메이션 영화 <창, 2012>에 대한 사례분석 요소를 도출하였다. 접근 방법으로는 첫째, 시사고발 기능에서 ① 사건 공론화의 사회적 가치, ② 내러티브를 통한 영화적 기능, ③ 시사고발 영화의 장르, 주제, 3가지 유형이며, 둘째, 연출적 특성으로는 ① 실화에 바탕 한 서사 구성, ②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립구조, ③ 가해자 및 피해자 유형, ④ 피해자 매도 및 2차 피해 발생, ⑤ 극적 장면의 연출, 셋째, 애니메이션의 표현기법으로 ① 애니메이션의 사실적 묘사, ② 개성 표출을 위한 캐릭터 디자인, ③ 서정적, 사실적 표현, ④ 상황연출로 기준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사례분석을 위한 접근방법



3. 사례조사- 애니메이션영화 <창, 2012>

3.1 사례대상

김유리, 연상호(2012)는 ‘어두운 종류의 이야기를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5]’이라고 언급하며, 상업성과 대중오락성을 전제로 한 애니메이션은 수익성이 불투명한 사회고발 형식의 작품 제작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연상호 감독은 <돼지들의 왕, 2011>, <사이비, 2013>에서 계급투쟁, 우상을 위한 연대 등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폭력성을 드러내는 시사고발 성향의 애니메이션 영화를 제작하며, 그만의 독창적인 작품관을 구축하였다. 특히, <창, 2012>은 그 동안 금기시 되어 온 군내부의 반인권적 문제를 영상화하며, 대중적 공감과 성찰을 유도하였다. 본 연구의 사례대상인 애니메이션 영화 <창, 2012>의 전체적인 스토리 구성은 다음과 같다.

군 생활을 성실히 수행하는 분대장 정철민은 창문이 없는 내무반에서 분대원들과 생활한다. 어느 날 관심병사 홍영수 이병이 전입 오며, 정철민은 홍영수 이병의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준비태세 시범이 있던 날 시찰 나온 사단장이 군장을 점검하게 되는데, 홍영수 이병이 장구류 대신 바람 넣은 비닐봉지로 군장을 채운 것이 발각된다. 이로 인해, 소대 전체가 기함을 받고, 정철민 병장은 분을 참지 못해 홍이병을 구타한다. 홍이병은 화장실에서 자살을 시도하나 미수에 그친다. 대대장의 유도질문에 정철민은 꿀밤 몇 대 때렸다고 했으나, 구타를 이유로 영창에 가게 된다. 이후 내무반에 창문이 만들어지고, 영창에서 돌아온 정철민은 무기력하게 말년을 보내고 제대한다.

또한, <창, 2012>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영화’의 <창>에 대한 관객들의 감상평을 영상 사례분석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였다.

3.2 사례분석 결과-폭력성, 은폐성, 폐쇄성

극의 배경은 최전방 부대의 2중대 2소대이며, 사건이 전개되는 내무반은 창고가 개조된 탓에 창문이 없는 구조이다. 영화 제목 또한, <창>으로써, 사건 전개의 폐쇄적이고 무거운 분위기를 서사전반에 암시한다. 연 감

독은 ‘정 병장은 군 복무 시절 나의 실제 모습이고, 모두가 겪은 실화’라고 언급하였듯이, <창, 2012>은 그의 군 생활 기간 실제 경험한 폭력사건에 기초하여 재구성되었다.

서사의 흐름은 폭력사건의 가해자인 정철민 병장과 피해자인 홍영수 이병의 갈등으로 전개된다. 정철민 병장은 ‘빡세게 뛰고 화끈하게 즐긴다’라는 문구가 관물함에 새겨있듯이, 다부진 체구에 명확한 언변과 행동으로 군인다운 캐릭터가 부각되었다. 반면, 새로 전입 온 관심병사 홍영수 이병은 작은 체구에 안경을 쓰고, 구부정한 태도와 낮은 목소리의 나약한 인물로 묘사되었다[그림 3]. 캐릭터 디자인을 통해 시사고발 영화의 전형적인 가해자와 피해자의 억압적인 구도를 시각화하고 있다. 정철민 병장은 홍영수 이병을 모범 분대원으로 개조하고자 시도하지만, 어눌한 말투와 태도, 그리고 총기 사용법 등 교육을 따라오지 못하는 홍이병은 점차 사소한 구타와 폭언을 당하기 시작한다. 그러던 중 준비태세 시범에서 홍이병이 군장 내용물에 속임수를 쓴 것이 발각되어 분대원 전체는 중대장에 의해 단체기합을 받게 된다. 그날 밤 정병장은 내무반에서 홍이병의 이기적인 행동에 분노하여 구타와 폭언을 가한다[그림 3]. 이는, 전체 스토리에서 폭력의 단계에 해당하며, 고립된 군 내부의 ‘폭력성’이 어떻게 원인되고, 일방적으로 전개되는지 묘사하고 있다.



그림 3. 내무반에서 정병장이 홍이병을 구타하는 장면(좌), 홍이병이 쓰러진 모습(우)

정병장의 폭행행위는 절대적인 가해자에 의해 순수한 피해를 입는 일반 시사고발 영화와는 다른 특성을 보인다. 이는, 홍영수 이병이 개인의 편의를 위해 의도적인 속임수를 썼으며, 이에 따라 무고한 분대원 전체가 피해를 입음으로써 정의로운 피해자가 아니라는 점과 정병장의 폭행이 그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분대의 공동체 유지를 위한 공공의 질서차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폭력상황에 대한 대다수의 영화 감상평을 보면 홍이병을 비난하며, 정병장의 폭력행위를 옹호하는 반응을 보인다[6]. 이는, 군대 내 집단주의에 대한 경험과 폭력에 익숙한 고정관념으로 인해 홍이병의 폭행 피해보다는 그의 속임수와 비겁한 행동에 더 분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병장의 폭력행위에 의한 개인의 피해가 정당화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군대에서 비밀리에 행해지는 폭력은 집단을 다루기 위한 하나의 통치방식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군 간부의 암묵적 방조에 의해 지속되어 왔다. 군 폭력의 폐해는 무엇보다 한 인격을 파괴하고 탈영이나 자살 등의 극단적인 사고로 이어지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연상호 감독은 ‘홍영수 이병처럼 (중략) 뭔가 주변에 짜증을 유발하는 사람들이란 생각들이 우리 의식 안에 있는 것도 같아요. 그렇다 해도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건 폭력이란 걸 얘기하고 싶었죠[7]’라고 언급하며, 폭력의 부당성에 대한 작품의도를 피력하였다. 폭력은 상황에 따라 정당하다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결코 적절한 행위는 될 수 없으며, 폭력의 원인을 떠나 개인병사에 대한 일방적인 폭력은 비인격적 가혹행위임을 강조한다.

정병장에게 폭력을 당한 홍이병은 화장실에서 자살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치며, 당직사관에 의해 상부에 보고된다. 사건소식을 접한 중대장은 정병장에게 단체기합을 준 사실을 감출 것과 홍이병의 부적응 사례를 부풀릴 것을 지시한다[그림 4(좌)]. 이는, 김미덕이 언급했듯이, 사건의 피해자를 비정상 인으로 매도하여 폭력의 원인을 축소 및 은폐하려는 군 간부의 부정적인 의도를 보여준다. 대대장은 인자한 표정과 미소를 지으며, 정병장의 구타를 유도하는 질문을 하는데, “홍영수 때문에 네가 고생하는구나, 말을 듣지 않으면 꿀밤이라도 때려주지 그랬냐”라는 대대장의 질문에 정병장은 아무런 의심 없이 “가끔 너무 말을 듣지 않아서 꿀밤 정도는 때렸다”고 대답한다. 하지만, 대대장은 이 말을 듣자마자 “야, 2중대장. 이 새끼(정철민) 당장 구속시켜!”라고 명령을 내린다. 평소 정병장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보이던 대대장은 정병장을 가해자로 몰며 허위와 이중성을 드러내고, 자기 본분을 다한다고 믿는 정병장은 대대장

의 구속명령에 놀라며, 충격을 받는다[그림 4](우). 정병장이 추구한 모범분대는 허상이었으며, 그는 군 내부의 위계적 권력사슬에서 군 간부에 종속된 소모적 소 권력 임이 드러난다. 이러한 부대장의 태도 돌변과 모든 폭행의 책임 전가는 관객의 큰 공분을 유발한다.



그림 4. 중대장이 사실왜곡을 지시하는 장면(좌), 대대장의 구속 명령에 놀라는 정철민 병장 모습(우)

‘네이버 영화’의 <창>에 대한 베스트 감상 평 중 smil****이 ‘군 복무시절 쓰레기 간부들을 잠시나마 떠오르게 해준 영화’라고 하였으며, 뿔감(h766****)은 ‘간부들의 떠넘기기식 정말 토나온다’라고 평하였다. 이는, 많은 군경험자들은 정병장에 이입되어 이러한 부당한 상황에 공감하고, 분노하며, 군 간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냄을 알 수 있다. 사건 발생 후 대처 과정은 중대장에 의한 사건원인의 왜곡과 피해자 매도 그리고, 대대장에 의한 가해자 몰기와 책임전가로 이어지며, 시사고발 영화의 특성 중 하나인 ‘2차 피해’가 드러나고 있다. 홍이병이 폭력에 의한 1차 피해자라면 폭력사건의 가해자로 몰린 정병장은 사건의 은폐과정을 통해 2차 피해자가 되며, 스토리 전개에 있어 군 내부의 ‘은폐성’을 서사 구조화 하고 있다. 이는 군 조직이 여러 층위로 구성된 절대적 위계구조와 군조직의 특수성에 기인한다.

윤민재(2014)가 ‘폭력적 관행이 단순히 병사들 간의 갈등과 폭력행사라기보다는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조직문화의 반인권적 특성 때문[8]’이라고 언급하였듯이, 연감독 또한 폭력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군 조직 차원에서 접근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철민 병장 또한 절대적인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될 수 있는 양면적 모습을 연출하였다. 이를 위한 연출방법으로써 <창, 2012>은 피해자의 입장과 피해사실을 극대화하는 시사고발 영화의 일반적 특성과 달리 가해자인 정철민 병장의 시점

과 내레이션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이는, 연감독이 ‘보통 관객이 피해자 입장에서 감정이입할 수 있게 만드는데 가해자 입장에 감정이입을 하도록 만드는 게 목적[9]’이었다고 언급하였듯이, 가해자의 시점에서 다의적으로 접근하며, 이로 인해 개인 보다는 군의 위계적 구조와 연관되어 있음을 드러내고자 시도한 것이다. 오래된 관행적 폭력문화의 지배하에 있는 정병장과 홍이병 모두 피해자이며, 그동안 지속되어온 폭력은 한국군의 ‘폐쇄적’인 전근대적 모습이기도 하다.



그림 5. 영창에 갇힌 정병장(좌), 내무반에 새로 생긴 창을 보고 있는 정병장(우)

군 재판의 판결은 내무반의 창이 없는 구조로 인해 감시가 소홀해지고, 이로 인해 구타 등의 가혹행위가 발생했다고 결론 내린다. 연감독이 ‘개인들이 어떤 문제와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층 손쉽게 찾을 수 있는 (피상적인) 원인을 찾아내 기계적으로 제거하려고 하죠[7].’라고 언급하였듯이, 조직과 집단 중심의 획일적 사고방식은 개별병사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와 대응이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정철민은 사건의 은폐와 왜곡을 통해 그가 꿈꾸던 군생활의 유토피아가 허상임을 깨닫고, 깊은 자괴감에 빠지게 된다.

표 4. 폭력성, 은폐성, 폐쇄성의 인과관계

폭력성	은폐성	폐쇄성
-정병장의 폭력 행위에 의한 홍이병의 1차 피해 -통치방식의 하나인 폭력	-중대장의 피해자 매도에 의한 홍이병의 2차 피해 -대대장의 사실 왜곡에 의한 정병장의 피해	-조직의 반인권적 특성 -군 내부의 위계 구조에 따른 관행화된 폭행과 은폐

<창>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조직 간의 소통 부재를 암시하며, 이는 일방적 강요와 명령, 가혹행위로 연계되며, 군의 위계적 구조에 따른 ‘폐쇄성’을 드러낸다. <창>에서 다룬 군의 ‘폭력성’은 개인에서 집단차원으로

로 확대되고, 사건 처리과정에서 군 간부들의 사건 원인 조작에 따른 '은폐성', 그리고, 이러한 폭력과 은폐는 군 조직의 '폐쇄성'에 기인하며, 순차적 인과관계를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요약하면 [표 4]와 같다.

3.3 사례분석 결과-애니메이션을 통한 현실의 재구성
연감독은 애니메이션을 통해 군 문화와 환경을 사실적으로 재현한다. 등장인물을 보면, 허위적인 대대장, 승진만 신경 쓰는 중대장, 이중적인 선임하사, 몸 사리는 말년 병장, 분대장, 분대원 등 군부대의 다양한 인물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며, 많은 군필자의 공감을 사고 있다. 네이버영화의 <창>에 대한 베스트 평 중 슈빌리(zaba****)는 '정말 리얼하게 잘 만든 애니메이션이다. 푸른거탑(예능 드라마) 진짜 사나이(TV 연예프로그램) 보고 군대에 대한 환상 같은 거 품지마라... 창이 현실이다' 라고 하였으며, 젠틀가이(madr****)는 '말이 필요 없다. 완벽하다. 군대 다녀왔다면 공감 할 수밖에 없는 리얼한 스토리, 고문관으로 인한 전반적인 폐쇄와 간부들의 이중성' 이라고 평하였다. 애니메이션은 물리적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의 형상과 움직임을 사실적으로 모방(Mimesis)하여, 관객으로 하여금 실제의 형상에 대한 관념적 인지와 상상을 유도한다. 이는, 등장 캐릭터의 디자인과 개성부여 그리고 실제 내무반 생활을 담은 서사전개는 군필자로 하여금 사실성에 대한 공감적 유대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애니메이션은 제작자의 창작 의도대로 모든 등장 캐릭터와 배경 그리고, 장면 연출이 가능한 작가 중심의 창조적인 작업이다. 서수정(2014)은 연상호 감독의 애니메이션 작품에 대해 '환상성에 천착하는 애니메이션 매체 고유의 성격보다는 리얼리즘 소설처럼 사회비판적 보고서[10]' 라고 언급하였다. 이는, 대중오락을 위해 환영적 표현을 주로 활용하는 일반적인 애니메이션이 아닌 시사고발의 내용을 다루기 위한 사실적 재현에 치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연상호 감독은 CG 애니메이션 제작자로서 <지옥- 두 개의 삶, 2003>, <사랑은 단백질, 2008>, <돼지의 왕, 2011>등 다수의 애니메이션을 제작 해오며, 애니메이션 리얼리즘 형식의 표현기법을 구축하였다. 애니메이션 리얼리즘은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허구적 캐릭터

와 배경에 대한 존재론적 접근이 아닌, 인식적 작용을 통해 실제보다 더 현실로 받아드리고 인식하게 되는 지점이며, 이는 실사촬영과 다른 물리적 세계에 대한 인식과정이라 하겠다. <창>에서 드러난 애니메이션 리얼리즘은 현실에 대한 실제적 재현이 아닌 스토리 전개와 상황에 내재된 의미에 사실성을 부여함으로써 관객의 몰입을 유도하고 있다. <창, 2012>의 CG 기술적 측면을 보면 3D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카툰 렌더링 기법을 사용하여 2D 만화 느낌이 나도록 제작하였다.



그림 6. 애니메이션으로 묘사된 홍영수 이병(좌), 정철민 병장(우)

섬세한 얼굴 표정을 위해 안면근육의 주름을 라인으로 표현하여 캐릭터의 감정 상태를 사실적으로 구현한다. 정철민의 눈매는 눈의 양끝이 날카롭게 모아지며, 매서운 느낌으로 분대장의 위치를 암시하였고, 반면, 홍영수의 눈은 두꺼운 안경알 너머 단순히 라인 처리하여 어눌한 느낌이 나도록 묘사하여 문제병사의 느낌을 시각화 하였다[그림 6]. 이는, 제작자의 디자인과 창의력에 의해 대립구조에 있는 두 인물의 만화적 묘사를 통해 개성을 극대화 시키고 표정연출에 있어 실사촬영 이미지보다 더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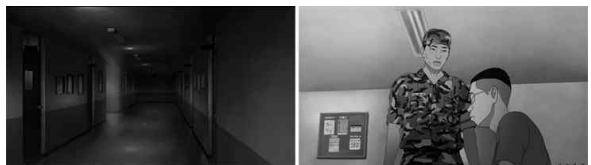


그림 7. 애니메이션으로 묘사된 복도(좌), 양각으로 연출된 정병장의 모습(우)

김유리, 연상호(2012)가 '애니메이션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작업 부분 중 하나는 바로 배경미술이다' 라고 언급하였듯이, 내무반과 복도는 어두운 톤으로 묘사하여 무거운 분위기를 암시하고[그림

기(좌), 훈련장의 숲 등은 수채화로 그린 듯 매트페인팅 기법을 이용하여 표현하였다. 상황연출에 있어서는 권력자의 우월한 위치를 강조하듯 아래에서 위로 바라보는 양각을 주로 사용하였다(그림 7)(우). 이는 주로 정병장이 폭언과 폭행을 가할 때 사용되어 홍이병의 왜소함을 더욱 강조하고, 억압적인 분위기를 극대화 하였다. 또한, 상관이 부정한 내용을 명령 할 때는 이를 바라보는 군인의 앞모습과 명령자의 뒷모습이 보이는 오버 숄더 샷으로 잡아 구도의 깊이감을 통해 군의 상하관계를 암시하였다. 이러한 리얼리즘 애니메이션에 기초한 캐릭터의 외형 디자인과 배경디자인 그리고, 카메라 샷 등의 표현기법을 활용하여 현실의 재구성을 효과적으로 연출하고 있다. 연상호 감독은 애니메이터로서 은유적, 상징적 표현이 용이하고, 제작자의 주관성 개입이 용이한 애니메이션을 통해 <창, 2012>을 제작하였다.

3.4 소기결론

홍진혁(2015)은 ‘연상호의 작품이 리얼한 현실을 묘사한다는 것은 너무 익숙해 보이지 않던 우리 삶을 객관화 하는 작업을 시도[11]’ 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듯이, 연상호 감독은 군대 내의 일상화 된 폭력사건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창, 2012>을 제작하였다. 최근 인권차원에서 군 폭력 및 의문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와 더불어 <창, 2012>은 시의적으로 적절한 시사적 주제를 영상화 하였다.

연상호 감독은 일반 시사고발 영화와는 다른 서사적 특성과 등장인물의 대립을 연출하며 군조직의 위계적 특성을 드러낸다. 정철민 병장과 홍영수 이병은 군대 내 계급과 외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분법적 구분이 명확하게 설정되었다. 사건 발생 후 중대장은 피해자인 홍영수 이병을 비정상인으로 매도하고 있으며, 대대장은 정병장을 폭력의 가해자로 몰아 서사적 반전과 함께 2차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피해자를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는 일반 시사고발 영화와 달리 가해자인 정철민 병장의 시각에서 상황이 해석되고 있으며, 가해자의 유형은 폭력의 가해자와 사건 은폐의 주모자가 다른 중층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는 군부대의 위계적 구조의 특성에 따라 정병장 또한 피해자임을 암시하며, 군 간

부에 종속된 소모적 권력을 드러낸다. 문제사병과 중간관리자인 분대장 그리고 지휘권을 가진 군 간부의 삼각 대립구조가 얽힌 폭력사건은 각 개인의 문제보다는 군조직의 반인륜적 관습과 문화에 있음을 고발하고 있다.

<창, 2012>에서 다룬 폭력사건은 폭력성, 폐쇄성, 은폐성의 순차적 인과관계로 이어지며, 연상호 감독은 이를 통해 군조직의 부조리와 부당한 가해구조의 본질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는, 사회적으로 금기시 되어 온 군내부 부조리를 다루는 ‘포괄적 사회문제’에 해당된다. 시각적 재현에 있어서는 리얼리즘 형식의 애니메이션을 통해 캐릭터의 개성과 상황에 내재된 의미를 함축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표 5. 애니메이션 영화 <창, 2012>에 대한 시사고발 영화 특성 분석 결과

분석 요소	분석 내용
목적	-군 조직의 폐쇄성, 폭력성, 은폐성 고발
시사고발 요건	-폭력 사건 제기의 정당성, 갈수록 사회적 이슈로 주목 받는 시의성
영화 장르	-군인 소개 드라마
주제 성향	-군대 내 폭력행위 등 부조리 고발
세 가지 유형	-사회적으로 금기시 돼왔던 ‘포괄적 사회문제’
가해자 유형	-폭력의 주체(정철민 분대장), 폭력의 조장 및 은폐의 주체(대대장, 중대장), 폐쇄적 군대 문화 -중층적 구조
대립구조	-다층적 구조에 의한 삼 각 대립 (군 간부, 정철민 분대장, 홍영수 이병)
피해자 매도 및 2차 피해 유발	-문제 병사인 홍이병을 비 정상인으로 매도함으로써 2차 피해 -정병장을 가해자로 몰며 2차적 피해 발생 -다층적 구조
피해자 중심 서사 전개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정병장 중심의 내레이션 -자전적 서술형식
극적장면연출	-장면연출이 아닌 서사의 반전
애니메이션 연출기법	-캐릭터의 개성표현을 위한 외형 묘사 -전통적 2D 만화애니메이션 기법을 이용하여 사실적 표현, 상황에 내재된 의미를 효과적으로 연출

<창>에 대한 사례분석의 의의를 요약하면, 첫째, 기존 시사고발 영화에서 다루지 않은 군 내부의 문제를 시사화 하였으며, 둘째, 일반 시사고발 영화에서 보이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립구조와 달리 폭력의 가해자 또한 피해자로 전환되며, 다층적인 피해자가 발생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스토리 전개는 일반 사회와 다른

군의 위계적, 폐쇄적 구조에 기초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연상호 감독의 자전적 경험과 서사 연출을 통해 전 근 대적 군 문화에 대해 성찰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며, 또한, 대중적 유대를 바탕으로 시사고발 메시지를 전달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창, 2012>에서 분석 된 시사고발 영화 특성을 요약하면 [표 5]와 같다.

III. 결 론

<창, 2012>은 기존의 대중오락 중심의 애니메이션 영화와 달리 사회적으로 민감한 군의 가혹행위를 시사 고발 형식으로 제작하였다.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창, 2012>의 시사고발 영화 기능에 대한 분석 결과는 첫째, 시사고발 영화는 객관적 사실 전달보다는 영화적 장치를 통해 사건의 전체적 맥락과 피해상황을 극적으로 묘사하여 실제 사건을 연상하게 하는 매개적 역할을 한다. 또한, 관련 영화 20편을 분석하여 시사고발 영화의 유형을 특징인 중심, 특정사건 관련, 포괄적 사회문 제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고, 주요 장르는 드라마, 다큐 멘터리, 액션, 스릴러 등으로 분석되었으며, 주제 성향 은 역사적 사건, 공권력의 비리, 사회범죄로 분류하였 다. 가해자 유형에서는 정부관련 공권력, 재벌 및 기관, 불특정 범죄자로 분류하였으며, 연출방법에서는 대립 구조, 피해자 매도, 2차 피해 유발 등의 특성을 도출하 였다. 둘째, <창, 2012>은 사회적으로 금기시 돼왔던 '포괄적 사회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매 도와 왜곡, 그리고, 은폐과정에서의 2차 피해 유발 등이 일반적 시사고발 영화의 특성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반면, 군의 위계적 구조와 특수성으로 인해 중층적 가 해자 유형, 다층적 대립구조,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가변적 인물 설정 등 일반 시사고발 영화와는 다른 특 성이 드러났다. 또한, 연감독이 가해자 중심의 서사전개 를 통해 가해자인자 피해자인 정병장의 양면적 측면을 표출하며, 군의 폭력은 개인의 문제 보다는 반인권적 문화에 있음을 함의하고 있다. 또한, 군의 폭력성은 은 폐성과 폐쇄성으로 이어지는 순차적 인과관계를 통해 그 사건이 전개되고 피해가 확대됨을 알 수 있다.

시각적 연출에 있어서는 연상호 감독이 여러 애니메 이션을 제작하며 독창적으로 구축한 리얼리즘 형식의 애니메이션을 통해 개성과 감정을 사실적으로 드러내 는 캐릭터 디자인, 상황에 내재된 의미를 극대화하는 영상 연출을 통해 <창>의 문제의식을 효과적으로 시각 영상화 하였다. 영상서사가 갖는 대중적 설득력은 매우 효과적이다. <창, 2012>은 그동안 금기시 되어온 군내 부의 폭력사건을 대중오락 매체인 애니메이션으로 제 작하였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이며, 군의 관행적 폭력 에 대한 성찰을 유도함으로써 그 사회적·공익적 가치가 있다 하겠다. <창, 2012>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군인 소재 애니메이션 영화에 구현된 시사고발 영화 기능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유의미한 연구라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1] 고희일, "PD저널리즘과 기자저널리즘의 차이에 관한 연구- 조직문화와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구성적 특성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방송문화연구, 제18권, 제2호, pp.161-192, 2006.
- [2] 김미덕, "내부고발(자)에 대한 문화적 재현- 실험 필름을 중심으로," 현상과 인식, 제38권, 제4호, pp.157-180, 2014.
- [3] 배상준, "<도가니> (황동혁, 2011)와 <부러진 화살> (정지영, 2012) -사사고발 매체로서의 법정 영화," 영화연구, 제55권, 제3호, pp.227-262, 2013.
- [4] <http://www.nocutnews.co.kr/news/4511729>
- [5] 김유리, 연상호, "돼지의 왕 : 연상호 2011 HD Color 97min," 한국독립영화협회, 제2권, pp.82-101, 2012.
- [6] <http://movie.naver.com/movie/>
- [7] <http://www.hani.co.kr/arti/PRINT/548417.html>
- [8] 윤민재, "민주화과정에서의 군의문사와 군대폭 력," 비판사회학회, 제12권, p.112-141, 2014.
- [9] <http://hernamwoong.com/entry/>
- [10] 서수정, "'타자'들의 잔혹사 : 연상호 애니메이 션," 만화애니메이션연구, 제12권, pp.267-286,

2014.

- [11] 홍진혁, “연상호 <사이비>의 내레이션 분석 -오프닝 시퀀스와 플래시백의 내러티브 효과,” 씨네포럼, 제22권, 제12호, pp.163-190, 2015.

저 자 소 개

이 현 석(Hyun-Seok Lee)

정회원



- 2012년 9월 : Loughborough University(영국), Animation PhD(예술학 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동서대학교 디지털 콘텐츠학부, 조교수

<관심분야> : 디지털 콘텐츠, 애니메이티드 다큐멘터리, 중국 애니메이션, 대중문화, 포스트모더니즘